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올해 말 은퇴”

투자의 신이 남긴
마지막 조언

60여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며 ‘투자의 신’으로 불린 워렌 버핏이 올해 말 은퇴한다. 후계자로는 부회장인 그렉 아벨을 지명한 워렌 버핏은 ‘하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시장은 늘 회복했다’는 등 확고한 투자 철학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기 투자와 단순 전략, 투자 방식, 감정 통제, 윤리 평판 등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했다. 단기 예측 대신 시간의 힘을 믿고, 복잡한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다. 또한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내재 가치보다 싼 때 매수하고, 시장에 휘둘리는 감정은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인간으로서 됨됨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예고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당 탄핵·특검 시사

대법원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판결문에는 토론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소수 의견이 기록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6만쪽의 기록이 있음에도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전자 문서로 봤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등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며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전남 장흥 해동사에 안중근 의사가 있다?

‘하얼빈’ 안중근 동상
장흥에 있는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의 헌신을 그린 영화 ‘하얼빈’이 백상에 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얼빈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전라남도 장흥에 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장흥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해동사가 있다. 해동사는 지난 1995년 국내에 안 의사의 직계 가족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안씨 문중에 의해 세워졌으며 매년 음력 3월12일에 추모식이 열린다. 안 의사의 동상은 정남진 해안에 태평양을 향하는 모습으로 세워졌으며 중국 하얼빈과 동경 126도 일직선에 위치했다. 이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발전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韓 “저도 호남사람”… 광주 5·18묘지 참배 무산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5·18묘지 참배 불발

무소속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끝내 참배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대통령 뒤편 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능욕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민주주의 문 앞에서 묵념하는데 그쳤고, “저도 호남 사람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33 주황색과 성격

주황색 좋아하면 친근한 성격 많아

●색채와 성격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며, 본인이 활동적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결혼할 생각이 희박하며, 결혼에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런 타입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어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많지만, 그중에는 사교적이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

이들은 경쟁심이 강해서 지기 싫어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강하며, 한 번 생각한 것을 관철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그들은 집중력이 뛰어나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하며, 머리 회전이 빠르고, 디자인과 색채에 관해 감각도 있다.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종종 무리한다. 그러나 행동이나 언동만큼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

주황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쉬우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싫증을 내며 무기력해진다. 이상한 점은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주황색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때는 사교적인 행동이 더 도움이 되며,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격진단법

마쓰오카(松岡)는 사람의 색채 성격 진단법을 연구했다.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사물을 감정적 또는 감각적으로 본다.

카이저(Kaiser)는 사람의 색채 성격 진단법을 연구했다.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을 지향하며, 아주 사교적이고, 웅변할 때도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다.

피스테르(Pfister)는 사람의 색채 성격 진단법을 연구했다.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서적 욕구가 강하

지만 그것보다
원만한 대
인관계를 원
한다.

●색채와 성향

주황은 사회적인 색이며, 빛나는 색이다.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고, 빈부와 상하 고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에게나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불임성이 있으며, 미소와 함께 말이 유창하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향으로 외톨이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황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화하는 재능과 소질이 있으며, 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쏟아 일을 완수시키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지저분한 것을 아주 싫어해서 집이나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해 둔다.

주황색을 좋아하는 유형 중에는 독신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띄게 많다. 주황은 사치와 환희의 색이다. 그 화려함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필한다. 이들은 화려한 사회적인 행사를 좋아하고, 다소 오버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천박하고 태도가 분명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애정이 많고, 친근한 사람이다.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성은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 이상적이다. 주황색을 좋아하는 여성은 기획자나 건설 담당자 등의 직장과 관련된 남성이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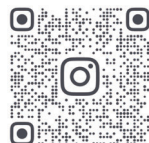
주황색을 좋아하는 색깔로 알아보는 직업으로는 영업, 판매원, 스텀러디스, 건축가, 디자이너가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